

# 은혜의 사람 실라

Silas, a Man of Grace

사도행전 16:25-3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3월 17일 설교

<sup>25</sup>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sup>26</sup>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sup>27</sup>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sup>28</sup>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sup>29</sup>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sup>30</sup>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sup>31</sup>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sup>32</sup>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 교회의 대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는 길게 실루아노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사일러스 (Silas)라 부릅니다. 그리스 이름인데 본디는 라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로 실바누스 (Silvanus)인데 사실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숲의 신 이름 그대로입니다. 실반 (Sylvan)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숲이 되지요. 펜실베이니아는 펜이라는 사람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서 이 사일러스라는 이름은 별 인기가 없습니다. 전에 기독교를 조롱해 히트를 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사일러스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일러스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십칠 세기 청교도들이 이 이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하고 요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였습니다. “형제 중의 인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행 15:22) 예수님의 열두 사도나 구제를 맡았던 집사 말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이끌어 간 사람입니다 (히 13:7, 17).

## 주 예수의 은혜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온 뒤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엉터리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만나 따졌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해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거기 다 있으니 거기서 결론을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회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과 구원을 주셨는데 유대인인 우리도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지울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저희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난 믿는다 하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어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회자 야고보가 일어나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 같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우상이나 음행 같은 몇 가지 죄만 조심하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낸 다음 그걸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써 보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과 주변 지역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인 우리나라 이방인 신자들인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하는 말이지요. 오랜 세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엡 2:11-22).

## 배달하고 가르침

그런 다음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외의 다른 짐은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했습니다. 주어가 둘입니다. 성령과 우리입니다.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건 우리, 곧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성령께서 내리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하고 썼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만 이들 말고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두 사람을 따로 뽑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두 사람인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실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이 뭘니까? 우상이나 음행 같은 것만 조심하라.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왜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라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두 사람 이름이 세 번 나오는데 똑같이 유다가 먼저고 실라가 나중입니다. 실라는 계속 나올 거지만 유다는 사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유다 다음에 실라입니다.

## 고난과 찬송

유다와 실라는 그렇게 편지도 전달하고 말씀도 가르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 주에 살았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우고 갈라선 다음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실라는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안디옥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라는 바울의 제이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도 이등이더니 선교를 떠날 때도 바울이 먼저고 실라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이름은 바울만 나옵니다. 디모데를 만나 동반자로 삼은 사람도 바울이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떠나 유럽 땅인 그리스 지역으로 갈 때도 바울만 나옵니다. 실라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실라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언제였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데 붙잡힌 사람이 바울하고 실라 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 이름만 나오더니 붙잡혀 고생하는 데는 실라도 같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몽둥이로 매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감옥에 넣었습니다. 도망은 꿈도 못 꾸게 감옥 가장 안쪽에 넣고 발에는 차꼬를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면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을 그 시간쯤 두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매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는데 (약 5:13) 두 사람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으니 고난 가운데서 기뻐던 모양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쁜 게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에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사도들도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주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다니 큰 영광이요 기쁨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행 5:41).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 받은 고난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저희나 우리나라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는지는 모릅니다. 두 사람이 갇힌 곳이 감옥 가장 안쪽이었는데 밖에서 자던 간수가 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괜히 깨워 더 얻어맞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죄수들은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옷도 찢어지고 흠뻘 두들겨 맞아 피멍이 든 두 사람이 한밤중에 같이 뭐라 중얼중얼하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미쳤나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 아닌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만 흔들린 게 아니라 옥문도 다 열리고 심지어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마저 풀어져 버렸습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이지요. 땅이 많이 흔들리면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는 어떻게 열렸을까요? 쇠사슬은 왜 또 풀어졌을까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또 지진 같은 현상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마저 풀어졌다면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

니까? 집단탈옥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설명하기 힘든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감옥에 넣은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느꼈는데 어떻게 감히 도망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니 간수가 잠을 깰습니다. 무슨 난리가 싶었겠지요. 쇠사슬 풀어지는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희미한 가운데 보니 아 옥문이 죄다 열려 있습니다. 자는 사이 다 도망갔구나 싶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면 간수 저도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그 순간 바울이 감옥 저 안쪽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소!” 우리라니요? 어제 들어온 바울이 벌써 감옥에서 대장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무서워 덜덜 떨면서요. 그러더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쓰러진 겁니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일단 두 사람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감옥 문은 다시 잠갔겠지요. 당시엔 간수네 집이 감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모시고 나오면 곧바로 제 집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여기서 “선생들아” 한 말은 원문이 “주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어르신들!” 하는 말입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을 깎듯이 높이는 표현입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 분들에게 달렸으니까요.

구원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벌을 면하겠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야 죄수가 도망을 안 갔으니 다시 묶고 잠그면 됩니다. 이 간수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죄수가 하나도 도망을 안 간 걸 보고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그 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힘입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복 받았지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 달라 한 것입니다.

이 간수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며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바울이 고쳐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종을 데리고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다고 두 사람을 고소해 두 사람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온 겁니다. 마을을 발각 뒤집어 놓은 사건이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귀신이 전도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기적을 보자마자 어르신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이구동성으로 해준 대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서로 통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큰 기쁨입니다. 그 은혜를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해 기쁨을 주었고 믿음도 굳게 다져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나온 것도 그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매를 많이 맞은 다음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아픈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고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중세의 성화 가운데 흑 손이나 발에 끊어진 쇠사슬이 감겨 있거든 실라인 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그림처럼 한 손에는 끊어진 쇠사슬, 다른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적힌 족자를 든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마게도냐 교회

바울 일행은 간수 가족을 전도한 다음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한 루디아의 집으로 가 거기 있던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루디아는 무역업을 하던 여성도로 바울 일행도 그 집에 묵었고 나중에는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웃한 두 마을로 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 방해를 합니다.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실라와 디모데만 남고 바울은 먼저 떠나 고린도까지 가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마침 직업이 똑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동업을 하면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오자마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게 전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말씀 전하는 일만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일도 했습니다. 주중에는 돈을 벌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현금을 갖고 왔습니다 (빌 4:15). 빌립보 교인이 누굽니까? 제 집을 교회로 만든 루디아, 간수랑 집안 식구, 귀신에서 해

방된 여종도 교인이 됐을 거고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해 믿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소식을 다 들었으니 그것도 전도에 도움이 되었겠지요.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교인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 그걸 실라와 디모데가 갖고 온 것입니다.

이들이 헌금한 액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바로 그만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어디서 그런 큰 헌금이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한 헌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한 구제헌금을 두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노니” (고후 8:1). 빌립보가 마게도나에 있는 도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 합니다. 은혜가 뭐니까? 은혜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헌금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그 고마운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기도 전에 자원해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만큼 풍성하게 받았으니 아무도 못 말합니다.

## 오직 은혜

은혜는 그럼 빌립보 교인들만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바울도 받았고 디모데도 받았고 실라도 받았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인들의 은혜를 바울에게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실라는 헌금 대신 몸을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교인 대표로 선발되어 안디옥 교회로 가 편지도 전하고 교인들의 믿음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이 같이 가자 했을 때 주저 없이 따라나섰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한테 괘시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감사했기에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 모른다면 그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교회에 모입니다. 뭐 하러 모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끼리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가 감사해 드립니다. 은혜가 뭔지 감도 없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 봉사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예배고 또 친교입니다. 은혜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실라는 바울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라는 안디옥으로 갈 때도 유다에 이어 이등이더니 바울하고 전도할 때도 내내 이등. 매 맞고 감옥 갈 때는 또 동역자, 그렇게 살다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한 뒤로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세웠다 했습니다 (고후 1:19).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문안한다 했으니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영영 사라집니다. 실라가 훗날 성경을 읽었더라면 서운했을까요? 아니지요. 그게 서운하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내 이름 찾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로 한 것이기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없어서 더 기뻐할 겁니다.

## 은혜의 삶

그렇게 사라진 것 같던 실라가 성경에 꼭 한 번 더 나옵니다. 십 년쯤 지난 다음입니다. 지난 주 마가를 언급했다던 베드로의 그 편지에 실라도 나옵니다 (벧전 5:12). 마가하고 실라가 감옥의 베드로를 돕고 있었다 했지요? 마가가 복음서 쓸 자료를 배웠다면 실라는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써 주었습니다. 보통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글공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면서 학교도 좀 다닌 실라가 대신 써 주었다고 봅니다.

글만 대신 썼겠습니까? 내용에도 영향을 끼친 흔적이 보입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뭐니까? 저희나 우리나라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는 오래 전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 입으로 강조한 그 은혜를 말년에 쓴 편지에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가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전한 그 은혜입니다.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전했던 그대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도 내 집도 다 구원을 얻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로마까지 와 베드로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라의 생애를 인도하고 베드로의 생애를 인도하고 바울의 생애를 인도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생애를 인도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난 주 살핀 마가도 한 번 실수를 극복한 멋진 모습이 있고,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극적인 회심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였다가 사탄의 앞잡이도 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도 했다가 다시금 사랑한다 고백도 하는 극과 극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라는 참 평범합니다. 무슨 대표나 장 자리를 역임한 적도 없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도 없고 참 싱겁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은혜 하나로 살았던 실라야말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 오직 은혜

사일러스라는 이름이 왜 인기가 없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 시대는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 아닌 걸 좇아가는 위선의 시대입니다.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따릅니다.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르면서 이름은 주님 이름을 붙입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도 휩쓸립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 하나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실라의 삶을 통해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내 삶이 실라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지 확인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권수경 목사)